



## 李敏廈

初代 KIST 行政管理室長, 理事  
前 東洋高速株式會社 會長  
現 로렉産業株式會社 會長



1966년 2월 1일 오후 2시경이라 생각된다.

“이 과장!” 갑자기 사무실 문을 활짝 열고 빠른 걸음으로 들어오면서 좌정도 하기 전에 “빨리 정리하고 나와 함께 새로운 연구소 설립 작업을 착수해야 되겠어” 청와대에서 朴 大統領으로부터 한국과학기술연구소(KIST) 初代 所長으로 임명장을 받고 그 길로 그 당시 정동에 소재하고 있던 원자력원 기획조사과 에 들러 과장인 나에게 숨 쉴 틈도 없을 정도로 다그치는 말씀이셨다. 筆者는 이때부터 오늘에 이르도록 40년 가까운 세월 동안 가까이서 직장상사로서 직접 모시기도 하고, 또는 멀리서 집안 어른을 섬기는 마음 자세로 모셔오는 터이다.

## 崔亨燮 博士를 回顧하면서...

崔 博士께서는 당시 원자력연구소 소장으로 재임 중이시고 본인은 이 연구소의 상급기관인 원자력원의 기획조사과장으로 원자력사업의 전반적인 중장기 개발계획과 운영정책을 수립하는 참모 역할을 하던 시절이다. 돌이켜 보면 그 때 우리나라는 국민소득 80불에 불과한 저개발국 상태였기 때문에 경제 발전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때였으며 이를 위하여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여야 했던 과학기술 분야의 이른바 “발전적 여명기”라

고 할 수 있다.

우리 과학기술계에서 崔 博士가 탁월한 금속공학자이시고 KIST 창설자로서 산업기술을 뒷받침하는 연구개발시스템의 패러다임을 확립하셨다든가, 또는 우리나라 정부수립 이후 7년이란 最長壽 장관직을 수행하면서 행정가로서의 출중한 수완을 발휘하셨다는 등의 업적은 주지의 사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상술하지는 않기로 한다. 다만 筆者는 崔 博士께서 KIST를 출범시키는 과정에서 그분의 참모로서 KIST 설립의 산파역할을 수행하였던 경험을 회상하면서 그분의 훌륭한 지도력과 인간성의 단면을 엿볼 수 있는 에피소드를 소개 해 볼까 한다.

崔 博士를 모시고 첫 세계나들이를 나선 것은 1962년의 일이다. 비엔나에서 열린 UN산하의 국제원자력기구 년차총회에 참석한 우리 대표는 吳元善 원자력연장과 원자력연구소장 崔 博士, 그리고 나 세 사람이었다. 여행을 하다 보니 정도 들었지만 崔 博士께서는 나의 從兄인 李敏禹(동양고속페리 대표)씨와 莫逆之友인 관계로 나를 친아우처럼 여겨주셨다. 서독의 수도 본에 들렀을 때다. 항상 앞장서서 매사를 주선해야 되는 나는 호텔에 도착하자 체크인 수속을 마치고 두 분께 방문열쇠를 하나씩 드렸다. 그리고 나도 방에 들어가 짐을 푸는데 崔 博士로부터 급히 오라는 전화를 받았다. 들어서자마자 그 특이한 눈을 부릅뜨며 호통이셨다.

〈吳院長님 방에 가 봤나?〉  
〈안가봤습니다.〉  
〈안가보고 어떻게 들라고 그러나? 윗분보다 당신 방이 더 좋으면 어떻게 할테야?〉

생각지도 않던 일이라 나는 할말을 잃었다.

〈세심한 주의를 해야지. 모시는 입장에 있을 때는 빈틈이 없어야 되는 거야!〉

그것이 혹 아부가 아니냐는 의문도 있음직하다. 그러나 그 분처럼 아부를 할 줄 모르는 분도 드물다. 다만 모실 줄 아는 분일 뿐이다. 崔 博士의 이와 같은 점은 누구보다도 朴大統領이 잘 아신다. 그러기 때문에 개각 때마다 更迭說도 나왔지만 7년이나 장관으로 유임하며 最長壽 長官으로 계셨다. 필요이상의 이야기를 꺼내는 성미도 아니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아부라는 것은 하지 않았다. 된통 기압을 받은 뒤엔 아무리 아랫사람이라도 배알이 뒤틀려 올 때가 있는 법이지만 이분에게 야단을 맞고 난 뒤에는 그것이 없다. 신기하게도 뒷맛이 나쁘지 않다.

KIST 발족 후 4년 남짓 나는 동네북이 되어 그분의 야단을 맞아야 했다. 崔 博士의 경우 야단을 치는 것은 “너를 신임한다”는 신호이다. 그분께서 길러낸 우수한 제자들은 모두 그것을 안다. 관심 밖의 사람, 아주 단념해 버린 사람에게는 그렇게 유할 수가 없다.

야단 맞은 기억 중에서 으뜸가는 것은 홍콩공항에서 있었던 일이다. 세계 각국에서 활약하고 있는 우수한 우리나라 과학기술자를 스카우트하겠다는 목적으로 떠난 여행은 매우 성공적이었다. 만족한 기분으로 홍콩에 도착, 폭 쉬고 나서 귀국 길에 올랐는데, 물론 호텔에서 항공사와 체크를 다 마치고 공항에 나오니 비행기가 5시간이나 연발한다는 아나운스가 나오지 않는가. 그분께서는 순간 나를 흘겨보며 공항이 떠나 갈 정도의 커다란 소리로 야단을 치셨다.

〈왜 미리 체크하지 못했는가?〉

〈다 하고 나왔습니다.〉

〈하고 나왔는데 이 모양이야?〉

나는 또 할말을 잊었다. 사람들이 몰려왔다. 그분의 야단은 그치지 않았고 나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하는 수없이 다 소곳이 참았다. 반감이 없는 야단은 오래 못 간다. 그분께서도 지쳤는지 시선을 딴 곳으로 돌렸다. 그 때 나는 눈치를 보고 살며시 제의했다.

〈시간도 많이 남았는데 바둑이나 환관 두시죠...?〉

〈어? 바둑?〉

이 한마디의 제의로 굳어있던 박사의 표정이 확 풀렸다. 나는 자석바둑을 꺼내어 펼쳐 놓았다. 그리고 둔 것이 몇 판인지 모른다. 처음 3점 놓던 바둑이 7점으로 내려갔다. 3연패마다 1점씩 더 붙이기로 하고 둔 것이다. 얼굴이 화끈해서 돌아보니 구경꾼이 짝 둘러서 있는 것이 아닌가.

야단치고 야단맞던 사람들이 금방 태연하게 바둑을 두고 있으니 이게 어찌된 영문인가하고 들여다보는 것 같았다. 열세에 몰린 나는 점점 화끈 닳아 오르고, 박사는 기분이 좋아졌다.

지금 생각해보면 미소를 금할 수 없는 일이다. 바둑? 하고 돌아보시던 그분의 티 없는 얼굴은, 지금도 주름살은 약간 늘었지만 별로 달라진 것 없는 것 같다. 이토록 博士의 야단은 신임하는 신호다.

博士와 같이 일을 해본 사람들은 박사가 얼마나 소탈한가에 놀라게 마련이다. 평소 그 분이 즐겨 찾는 곳은 대중음식점이다. 특별한 경우에도 소위 요정이라는 곳을 가면, 시종 자세를 곳곳하게 할 뿐, 농담 한번 건다거나 아가씨들 손목

한번 잡는 일이 없었다.

“곰탕장관”이라는 별명이 있다. 7년이나 장관을 지내면서 국무위원 식당의 곰탕만 애용했기 때문에 붙은 별명이다. 근사한 살롱이나 요정에 가서 꽃같은 아가씨들의 집대를 받으며 거룩하게 노고를 푸시는 취향의 장관들과는 근본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다르다.

너도 나도 하는 골프를 속에서, 위치가 위치여서 골프를 하셔야 된다고 권장하는 이가 한 두 사람이 아니었지만, 장관 그만둔 뒤에 하자고 미루어 오더니 결국 장관에서 퇴임하신 후에야 李敏禹씨의 강권(強勸)에 못이기에 시작하셨다는 소식 이었다.

뇌물이나 부정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분이다. 시대풍조라는 것이 있었는데도 KIST와 집 사이만 왔다갔다하며 일체 돌아보지 않았다.

KIST초기의 이야기다. 우리나라가 1200만 불, 미국이 1200만 불 출자하였으니 그 당시로는 규모가 큰 프로젝트다. 博士는 KIST만 지키고 대외 교섭은 대부분 내가 맡았다. 까딱하면 큰 일이다. 민간업체와 접촉하는 사이에 어떠한 유혹이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博士는 태연하다. 근무시간이 다 끝나면 키 멤버들은 휴게실로 모이게 된다. 博士가 바둑을 두는 것이다. 모두 지켜보고 있어야 된다. 아무도 먼저 나갈 수가 없다. 바둑은 보통 저녁 9시쯤 되어야 끝난다. 집에 돌아가 세수하고 밥 먹고 나면 잠자리에 들기 안성맞춤이다. 이른바 마음이 이완될 틈을 주지 않는 것이다.

이튿날 아침에 출근하면 깜짝 놀랄 새로운 일을 지시한다. 집에 가서도 KIST일만 생각하는 흔적이 역력하다. 사람이 살다보면 엉터리도 부

림직 한데 이분에게는 전혀 통하지 않는다. 처음에는 그것이 못마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오랫동안 모시다 보면 어느새 동화되고 만다. 그렇게 된 것을 후회하는 사람을 이제까지 나는 보지 못했다.

그분이 얼마나 소탈한가를 입증하는 넥타이 건을 끄집어 내지 않을 수 없다. 구라파 여행 때의 일이다. 넥타이를 몇 개 미리 매 가지고 온 것을 보고 나는 기이하게 생각했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매 가지고 온 넥타이를 머리 위로 뒤집어쓰고 잡아당기기만 하는 것이 아닌가.

〈아니, 넥타이 매는 것이 귀찮아서 그렇게 해 가지고 오셨습니까?〉

〈아니야, 내가 매면 잘 안 돼.〉

나는 하마터면 웃음을 터트릴 뻔했다. 그러나 이제까지 넥타이는 모두 부인에게서 매 주신 것이다. 미국에 가서 것처럼 명성을 떨치셨던 분이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인가.

일반적으로 외국에 나가면 국내에서 체면 때문에 못하던 일들을 해보고 싶어하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그런데 이분은 천만에 말씀이다. 만날 사람을 만나고, 할 일을 다한 뒤에는 호텔에서 바둑이나 두자고 하신다. 어찌 보면 그렇게 무미건조한 양반을 무슨 맛으로 받드느냐는 소리가 나옴직 하지만 그분이야말로 존경할만한 분이라고 분별한 다음부터는 그렇게 다정하게 느껴질 수가 없었다. 참으로 소탈하고 다정하시기도 한 분이다.

博士를 생각할 때 실력, 정열, 그리고 소신을 빼놓을 수가 없다. 멋이 없는 사람은 주변머리도 없고 실력도 별 거 아니라는 소리가 있다. 崔博士를 길외로만 본 이들 중에는 이분을 가리켜 그

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없지 않다. 그러나, 이분은 누구보다도 단단한 실력을 가졌기 때문에 소신이 있고, 집념스럽게 일을 추진해나가는 정열이 있다.

KIST가 생긴 것은 1966년 초였으며 스카우트 여행을 떠난 것은 그 해 가을이었다.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는 오늘날과 같은 경제적 발전이 없었고,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불안한 상태였으며 북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던 실정이었던 만큼, 외국에서 이미 과학자로 인정을 받아 안정된 생활기반을 구축한 분들이 과연 황무지 같은 국내로 들어오는 것을 찬성해 주겠느냐는 것은 매우 의문이었다. 그러나 미국에 건너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설득하는 것을 보고 나는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다. 당시, 崔博士의 정열은 아주 뜨거운 것이었다.

〈모처럼 기운을 차리고 일어서려는 조국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같이 유능한 과학자가 들어와서 힘을 모아 일을 해주면 韓國의 장래는 반드시 불만한 것이 될 것입니다.〉

〈보람을 느끼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결코 사양하지 마십시오. 동포를 사랑하십시오!〉

〈옛날의 한국이 아닙니다. 한강의 기적을 이루는데 당신이 와서 힘이 되어 주십시오!〉

〈지금 한국은 당신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설득할 때 崔博士의 입은 불덩이 같이 별정계 달아오르고, 그 열을 담은 침은 마구 튀었다. 상대방 얼굴에 감동이 서서히 번져 가면 崔博士는 그들의 손을 꼭 잡는 것이었으니 그때의 광경은 무어라 표현할 길이 없다. 미국을 위시하여 몇 나라에서 백 명 가까이 만났는데 그분들 모두가 한결같이 정열적으로 찬동해 주었다. 이 열

마나 감격적인 순간이었겠는가.

그때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기뻐하시던 崔博士의 표정을 나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처음 기대를 훨씬 웃돌았기 때문에 우리는 나중에 사람을 추리느라 큰애를 먹었다.

〈보라구, 비전이 있으면 알아듣게 된다구. 아무것도 없는 한국이라면 누가 믿어줘. 한국! 과학적으로 커져야지. 될 것 같아! 한국장래에 희망이 있다. 될거야!〉

그 뒤, 한국이 어떻게 자랐는가는 세상사람들이 다 아는 일이다. KIST가 어떠한 존재가 되었는데도 세상이 다 아는 일이다. 역사라는 것은 이렇게 만들어졌다. 내가 가장 존경하는 분이 그 역사를 만드는 한 모퉁이에서 주역을 하셨고 그 때 내가 그분을 모실 수 있었다는 영광을 나는 무엇에도 비할 수 없는 큰 자랑거리로 알고 있다.

崔博士를 모시던 입장을 떠나 내 나름대로 사업을 벌려고 있다. 그 동안 유명무명의 많은 인사들과도 접촉하였고 새로이 존경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분, 존경해왔는데 이제는 그만 해야 되겠다고 판단되는 분, 人面을 하고 사람이 그럴 수 있을까 하는 분, 염치도 코치도 없구나하는 분,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분들을 겪었다.

말하자면 세상물정을 좀 알았다고나 할까...

그리고 崔博士를 생각할 때 나는 영광스러운 선배를 모셨다는 행운을 새삼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나는 큰 소리로 외칠 수 있다.

〈이분을 보십시오! 이분은 거짓이 없는 분입니다. 이분은 돈을 탐내지 않으셨습니다. 이분은 과

학을 사랑하셨습니다. 이분은 과학이 나라 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를 투철하게 아셨던 분입니다.〉

세상에 청렴하시다는 고관들, 그러나 누가 이분보다 더 깨끗했는가.

세상에 욕심 없는 어른들, 꽤 있다고 들었다.

그러나 누가 이분의 오른쪽에 나설 것인가.

博士님 댁에는 처음부터 오늘날까지 家庭婦가 없었다. 夫人께서는 남편과 자식들의 뒷바라지를 평생 혼자서 도맡아 해오셨던 것이다. 明倫洞 열칸 짜리 집에서 이렇다는 불평 없이 오랫동안 사시던 이분들의 뜻을 누구에게 이야기 해주었어야 된단 말인가.

당시 朴大統領이 하도 이분의 孤高한 뜻에 감동하여 金一封을 주고 집을 마련케 한 것은 아는 사람만이 아는 호뜻한 이야기라 아니할 수 없다. 博士도 어언 인생 팔십을 살아 오셨다. 간간하시던 얼굴에 속일 수 없는 나이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우리나라 현대사에 과학기술발전의 틀을 짜신 분, 이분의 長壽를 빈다. 이런 분이 오래 사시어 혼탁해지는 우리사회에 맑은 물이 되어 주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그분이 평소에 일러주신 한 교훈을 새기면서 이 글을 맺는다.

〈技術者是 명인거장(名人巨匠)이 나올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는데, 科學者是 물질적인 대가(代價)보다는 학구적인 업적에 치중하는 훌륭한 연구문화를 조성하는데, 힘을 기울여야 한다.〉

KRIA